김하은양

김성주양

강진 女초등생 연쇄 실종 18년 경찰, 사건 해결 실마리 찾았다

유력 용의자 잡을 중요한 단서 확보…조만간 수사결과 발표
여고생 실종 사건과는 무관…장기미제 사건 해결 동력될 듯

경찰이 2000년대 초반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한 강진 여자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잡을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20여년간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론될 정도 국내 대표 실종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해결시 또 다른 장기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000년과 2001년 강진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의자는 이번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수의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현재 (강진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한 단서나 증거, 용의자 신상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곧 공식적인 (경찰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김성주·김하은양 실종 미스터리' 보도(광주일보 2008년 3월17일자 7면)와 관련, 같은 해 장기 실종 어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강진 실종 초등학생에 대한 수사를 10년 넘게 원점부터 재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수집한 각종 증거와 목격자, 용의자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진행했으며, 실종 아동들이 학교 인근에서 대낮 하굣길에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주요 통학로와 상가 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재탐문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특히 실종 당시 어린이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예상 이동경로를 재조사하는 한편 학교와 가까운 강진 남포리와 목리·평동리는 물론 이번 강진 여고생 실종 사망 사건이 발생한 도암면 일대 등 주변을 샅샅이 재수사했다.

경찰은 10여년에 걸친 장기수사를 통해 최근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초 1년 새 연이어 발생한 강진 여자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은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사건이다.

지난 2000년 6월15일 오후 2시께 강진 동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성주(당시 8세)양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오빠를 기다리던 중 실종됐다.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양의 부모는 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딸이 사라진 강진에서 지내고 있다.

김양이 실종 된지 356일째인 2001년 6월1일 오후 1시 30분께 강진 중앙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김하은(당시 6세)양이 사라졌다.

김양은 이날 같은 반 친구 A군과 하교 후 집에서 3분 거리인 여고 입구 횡단보도까지 함께 걸어갔다. 이후 A군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고, 혼자 남은 김양은 실종됐다.

실종된 초등생 2명은 ▲저학년의 여자아이라는 점 ▲6월 대낮 하굣길에 혼자였다 사라졌다는 점 ▲아이 부모에게 어떠한 금품 요구나 전화 협박 등이 없었다는 점 등 유사점이 많았지만,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실종과 관련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플라스틱 ZERO' 만들어요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인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동구 충장로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 앞에서 자발적협약 강화 내용과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문제를 홍보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버스안 조울증 환자 칼부림 막은 의인들

전남대생 승객·승용차 운전자, 흉기 찔린 교수 구해

경찰, 의인 감사장 수여키로

달리는 버스 안 조울증 여성의 칼부림 난동(광주일보 7월 3일자 6면)을 막아낸 것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대학생 승객과 운전자였다.

또 버스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응급 조치한 여성 운전자의 헌신적 행동이 한 집안의 가장인 40대 대학교수를 살려냈다. 경찰은 이들 의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3일 하동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하동군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승객 A(여·21)씨가 난데없이 다른 승객 B(44)씨를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다.

당시 잠을 자던 승객 이상호(22·전남대 2학년 휴학)씨는 "살려달라"는 고함에 뒤를 돌아봤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친 상황이어서 흉기를 뺏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씨는 A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뺏으려고 애썼지만 흥분해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도와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다른 승객 한 명이 달려와 A씨의 한쪽 팔을 잡았다. 뒤이어 버스를 세운 운전기사도 합세했다.

이렇게 이씨는 흉기를 쥔 A씨 손가락을 하나씩 떼 흉기를 떨어트린 다음 A씨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를 인계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 옷 대부분은 B씨가 흘린 피로 물들었다.

이상호씨

유순주씨

이씨는 "고향인 경남 고성에서 대학교로 가던 길이었는데 불과 5~10분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는 다치지 않았고 버스 좌석에 긁혀 약간 찰과상만 입었다"며 "피해자가 무사하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용감한 시민은 이씨뿐만이 아니었다. 이씨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든 사이 크게 다친 B씨는 버스 밖으로 피신했다.

당시 정차된 고속버스 주변을 달리던 유순주(여·47) 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뒷좌석에 태웠다. B씨는 유씨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 꼭 살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B씨를 인근 섬진강휴게소까지 태우고 간 유씨는 "무작정 갔다가는 더 위험한 상황이 올까 봐 경찰에 신고한 뒤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 무섭기도 했지만, 한 집안의 가장인 B씨를 무조건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휴게소에 도착해서도 곧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일부 휴게소 직원은 경찰과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의식을 잃어가는 B씨에게 계속 말을 걸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등 도움을 줬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이씨와 피해자 구조에 도움을 준 유씨와 일부 휴게소 직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에는 15명 정도 있었는데 이씨 등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B씨가 더 큰 화를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승객을 흉기로 찌른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재개발 철거 예정지서 '안타까운 고독사'

재개발 철거 예정지에서 혼자 살던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광주광산경찰과 광산구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18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주택에서 혼자 살던 박모(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하남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잠옷을 입고 있었던 박씨는 침대에 반듯이 누워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박씨의 집은 TV만 켜져 있을 뿐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조사결과 자녀만 5명을 둔 가장이었던 박씨는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내고 도박에 빠지면서 23년 전부터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지내왔다.

박씨는 지난 2000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포함 100여만원 받아 생활해왔으며,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낡은 주택에 살던 박씨는 임대료 없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인의 진술과 비교적 깨끗한 이씨의 시신 상태로 미뤄볼 때 숨진 지 2~3일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대장암 투병 70대, 아들과 숨진 채 발견

3일 오후 1시 16분께 전북 남원시 한 주택에서 대장암으로 투병해 오던 A(71)씨와 우울증을 앓던 아들(37)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이 경찰에 "주택에 사는 사람이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닫혀 있던 출입문을 개방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숨져 있던 이들을 발견했다. 당시 방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생전에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아들은 우울증을 앓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들은 남원시청에서 자활 근로를 하다 지난해 4월부터 아버지를 병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평소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 외출도 하지 않은 탓에 이웃 주민은 이들이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화여론조사 나이 조작 40대 선거법 위반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와 함께 연령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4월 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지역 군수 당내 1차 경선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지인 등 107명을 카톡방에 초대해 전화여론조사 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목표 응답자를 채우지 못한 연령대를 찾아 지인들에게 지지 후보를 밝힌 뒤 허위로 연령을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의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 참가했으며 당내 여론조사 결과, 이들이 지지한 예비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이런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완도해경, 선박 폐수 무단 배출한 선장 적발

완도해경은 3일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선박의 폐수를 바다에 무단 배출한 어선 H호(9.16t) 선장 김모(54)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5분께 완도항 앞바다에서 선저폐수(배 밑바닥에 고인 기름 찌꺼기)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김씨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야간에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돼 있는 펌프로 폐수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긴급 해상방제 조치 완료 후 주변 선박 탐문조사 끝에 H호 기관실에서 유출 흔적을 발견해 김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유사 범죄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해안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동료 지방선거 줄서기 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 처벌 받을 처지

○…동료가 지난 지방선거때 지역군수 후보에게 줄서기를 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경찰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3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소속 정보관 박모 경위는 지난 4월 '같은 경찰서 김모 경위가 지역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줄서기를 했다'는 내용을 경찰 내부에 첩보 형식으로 동향 보고했다는 것.

○…이 사실을 안 김 경위는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박 경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 경위 보고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14527	2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388 264㎡	대	60,297,580 60,297,5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남측노폭약2.5m콘크리트포장도로에접함
		나주시 남평읍 수청길 64 72.09㎡ 제시외 창고 등 42.8㎡[물건번호2:감정평가명세표기재제시외건물㉠]일부가타지상[동소387번지]소재하는것으로추정되나정확한것은별도측량요한것으로사료된다는기재있음]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14527	1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400 36㎡[인접필지통해출입은가능]	대	4,032,000 4,032,000	지적도상맹지
2017타경 67484	1	곡성군 옥과면 수리 산123 7240㎡	임야	19,548,000 19,548,00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 14954	1	광산구 월계동 763-6 호반아파트 상가동 2층 203호 80.73㎡	근린시설	96,100,000 96,100,000	평가대상은생활편익시설로이용중
[자동차,중기]					
2016타경 64693	1	사용본거지: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373 차명:선진평 등록번호:전남81바4221 차명:선진평판트레일러 연식:2014[번호판미부착상태]	건설기계	23,000,000 23,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2송암주차장
2017타경 68197	1	사용본거지:광산구 오선동 270-27 등록번호:81무7415 차명:토미24톤암롤트럭 연식:2009	건설기계	40,000,000 40,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8타경 2804	1	사용본거지: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양지길 18 등록번호:40로3000 차명:벤츠S550 4MATIC 연식:2007	자동차	35,000,000 35,000,000	보관장소:광주서구금호동531하나로에프앤씨
2018타경 60374	1	사용본거지:순천시 남정동 335-7 등록번호:63어9655 차명:A6 45 TDI quattro 연식:2015	자동차	32,000,000 32,000,000	보관장소:서구벽진동119-1글로벌에보관
[기타]					
2017타경 5158 2017타경 19195 [병합]	1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7-1 849㎡ 제시외 관리사 등 364.27㎡,관정 1식,주목 1주,감나무 1주	잡종지	30,643,300 30,643,3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공작물및수목포함.현황조사보고서상제시외건물소유자소유,현재축사와퇴비사는사용하지않는상태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548-30 223.08㎡[실측하여사정한면적약324㎡.건물은인접지[구원리7-2]일부를점유하고있음]	축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7. 18.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7. 25.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신호